

# 미래형 교육과정과 입학사정관제

이옥식 | 한가람고등학교 교장

얼마 전 국가교육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두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미래형 교육과정 자체에 대해 논하기보다는, 10여 년에 걸친 교사생활 경험과 학교장으로 20여 년 동안 직접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도입된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미래사회의 구체적인 모습과 관련해서는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른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미래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로서 학문이나 기술 발전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래사회에서는 세계화에 따라 단순한 언어구사능력뿐 아니라 인류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지식의 단순 암기보다는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새로운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과 적응력, 이러한 능력들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이 밖에도 팀워크와 봉사정신 등이 필요할 것이라는 데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교과목별로 몇 시간을 더했다 뺐다 반복했을 뿐,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함양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보니 교과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에 따라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목과 내용, 시간 등이 정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현재 우리가 가르쳐야 할 학생들이 과거의 학생들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과거처럼 학교와 교사가 제공하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성과 소질에 따라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개성적인 존재로 성장·발전하였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학습능력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들 또한 이렇게 달라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목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교재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그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현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교급의 같은 학년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교과서를 동일한 수업시간으로 배분하여 가르치는 것은 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일 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기성세대의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필자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꼭 갖추어야 할 능력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학교와 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직면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또한 고등학교 이하 단계의 학교교육에 대한 고민과 요구 사항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정부 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학교교육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음의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각 교과별로 교과 수업시수 확보를 주장하기에 앞서 해당 교과가 그동안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 사회에서 중요했으니까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왔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타당성 있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정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성토 또는 힘겨루기로 끝난다면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없을 것이며 우리의 노후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단계의 교육과정과 교과 내용,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입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와 고등학교 이하 단계의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현재와 같이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합산하여 입학대상자를 선발하는 대입제도는 고등학교 이하 단계의 모든 학생을 1등부터 60만등까지 서열화하여 1점이라도 더 올리도록 하는 무한경쟁으로 내몰 뿐이다. 또한 이런 경쟁을 위한 소모적인 학습은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기보다는 교과지식의 단순 암기에 머물도록 할 뿐이며, 이로 인해 고등학교 이하 단계의 교육과정이 과행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 한들, 대학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지원자들 사이의 변별성을 손쉽게 찾기 위해 학교가 아닌 외부 기관이나 학교교육과 상관없는 학생의 개인적인 접근에 의한 성과들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단계의 학교교육은 더욱 황폐화되고 사교육만 더욱 번창하게 될 것이며 사회 전체가 상호 불신과 갈등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을 평가함에 있어 사교육을 통해 학교 외부에서 얻은 개인적인 성과를 배제하고 학교교육 속에

서 학생 개개인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성취를 이루어냈는지, 향후 무엇을 더 이루고자 하며 또 이를 수 있겠는지 등이 주요한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대학이 학생평가의 초점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학교교육 활동에 맞출 경우 고등학교 이하 단계의 학교에서도 그에 부합하는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화답할 것이다.

현재 대학이나 고등학교 이하 단계의 학교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소명은 우리 학생들을 미래사회를 책임질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교과 총점 1,2점이 더 높은 학생, 그러기 위해 소모적인 학습에 지친 학생, 경쟁 체제에 과도하게 노출된 나머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학생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며 남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등학교 교장으로서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모습은 학생들이 좋아해서 잘할 수 있고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교과를 자신의 학습능력에 맞추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고등학교에서만 큰 상처나 열등감 없이 당당하게 자아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또한 학생들에게 소모적인 학습을 강요하는 공범이 되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맞추어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러한 바람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단계 학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입학사정관제로 대표되는 대학의 노력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에서도 우리의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

필 / 자 / 소 / 개

이옥식

홍익대 사범대 수학교육과, 연세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교육위원회 위원(한국여성단체협의회), 시·도 교육청 평가위원회 위원, 새교육동동체위원회 위원, 사립학교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한가람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학이 학생평가에 초점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학교교육 활동에 맞출 경우 고등학교 이하 단계의 학교에서도 그에 부합하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화답할 것이다.

